


 특 집

## IT 인력의 경쟁력 제고 방안

허 문 행\*

## ● 목 차 ●

1. 서 론
2. IT 인력 수급 현황 및 전망
3. IT 인력양성 추진 현황
4. 결론 및 제언

## 1. 서 론

## 1.1 IT 인력양성의 필요성

1990년대는 자본과 노동을 주요 생산요소로 한 산업경제시대에서 지식과 정보가 성장의 원천인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의 시대였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체제도 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업구조로부터 고부가가치를 특징으로 하는 IT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었다. IT분야는 지난해 387억불의 수출실적을 기록, 전체산업대비 25.7%를 차지하는 핵심산업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산업구조가 IT를 중심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산업의 성장엔진으로서 IT 전문인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 주요한 생산요소가 기계나 설비 등이었다면, 오늘날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의 국가경쟁력은 지식과 정보를 체화한 전문인력에서 비롯되고 있다. 한마디로 우수 IT 인력의 확보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IT산업이 발달한 세계각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계 IT산업의 종주국인

미국은 물론 인도, 이스라엘, 아일랜드 등 세계적인 IT 수출국들은 예외 없이 풍부한 우수한 IT 인력을 산업발전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고급 IT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IT 수출강국으로 부상하였는데, 일찍부터 정부가 앞장서서 대학과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IT교육체계를 강화하고 고급 IT 인력의 공급기반을 튼튼히 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우리 나라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인도는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IT 전문 교육기관을 대거 증설하면서 후진농업국에서 세계적인 소프트웨어수출국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했다. 이스라엘도 테크니온, 와이즈만 등 세계수준의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우수인력과 구 소련에서 유입된 풍부한 과학기술인력이 IT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 1.2 국내 IT 인력양성의 문제점

국내 200여 개 대학의 IT 관련학과에서 배출되고 있는 IT 인력은 연간 3만 여명에 달한다. 단순히 인원수만 놓고 본다면 산업계 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으나 IT산업의 빠른 성장과 고급기술기반의 새로운 사업분야의 생성으로 요구되는 고급전문인력의 수요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단장

다. 다시 말해, 대학 등 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이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IT 인력의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은 적절한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구인난에 빠져 있고 IT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인력은 구직난을 겪고 있다.

국내에서 배출되고 있는 IT 인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IT 전공자들의 실무적응력 부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IT 기업들은 채용과 동시에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신속히 소화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내대학의 IT 학과 졸업생 대부분은 프로젝트수행이나 인턴십 경험이 미비하고, 실습강의를 충분히 이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그 실력이 기업들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처럼 양성된 IT 인력의 실무적응력 취약은 이론위주의 대학교육과 산학협력프로그램의 유기적 활용 미비, 그리고 민간교육기관 및 훈련기관의 전문성 부재 등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이로 인해 IT 전공자가 IT산업현장에 투입된 뒤에도 3~6개월의 업무적응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1), 국내 IT 기업들 중에서는 갓 대학을 졸업한 신입직원들 대신 상당기간의 업무경험을 가진 경력자들을 선호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글로벌능력의 취약함이다. 영어구사력 미비, 해외 인적 네트워크의 부재, 교육프로그램의 수준 미달 등으로 국내 IT 인력의 국제경쟁력은 인도 등 경쟁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IT 인력의 국제 경쟁력 정도를 나타내는 단적인 예로 IT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 정도 등 글로벌화에 있어 우리 나라는 인도,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 크게 뒤쳐져 있다. 미국의 H-1B 비자 발급 건수를 비교해 볼 때, 1999년 10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총 81,262건 중 인도가 42.6%, 중국이 9.9%이며 한

국은 2.1%에 그치고 있다.

## 2. IT 인력 수급 현황 및 전망

### 2.1 IT산업 종사자 현황

90년대 IT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IT산업 종사자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전체 산업 종사자 중 IT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1.9%에서 2000년 3.3%로 높아졌다. 2001년에는 미국 9.11 테러의 여파로 3.1%로 감소하여 정체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2002년 1/4분기 현재 668,000명이 IT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1> IT산업 종사자 비중

(단위 : 명)

IT산업종사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4
IT산업	402	556	569	692	665	668
정보통신산업	402	387	413	521	495	497
정보통신 관련 산업	-	169	156	171	170	171
전산업	21,106	19,994	20,281	21,061	21,362	21,216
IT 인력 비중 (%)	1.9	2.8	2.8	3.3	3.1	3.1

IT와 비IT산업을 통틀어 전 분야에 종사하는 IT 직업 종사자 수도 1998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1년 1,163,000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 산업 취업자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세부 직종별로 구성비를 살펴보면 비교적 저학력을 요구하는 생산조작 및 정비직의 비중이 높지만, 컴퓨터 전문직과 IT 관련 관리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직종고도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전문직 종사자 수와 중저급 컴퓨터 관련직 종사자 수를 비교하면, 1997년에는 중저급컴퓨터관련직 종사자 수가 176,000명으로 컴퓨터 전문직 종사자 수인 151,000명보다 많았지만 2001년에는 컴퓨터전문직 종사자 수가 218,000명으로 중

저급 컴퓨터 관련직 종사자 수인 205,000명보다 많게 집계되었다.

<표 2> IT 직업 종사자의 추이 및 현황

(단위: 천명)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IT 직업 종사자	1,009	923	1,016	1,113	1,163
컴퓨터전문직	151	146	167	189	218
중저급컴퓨터관련직	176	176	190	204	205
전자 및 통신기술직	152	132	148	165	176
생산조작 및 정비직	450	385	417	449	461
기타정보통신관련직 및 관리자	79	84	95	107	102
전 산업 취업자	21,106	19,994	20,281	21,060	21,362
IT 인력 비중(%)	4.8%	4.6%	5.0%	5.3%	5.4%

### 2.2 IT 인력 수급전망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IT 인력 수급전망에 따르면 학력별·분야별 수급 불일치로 인한 IT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분은 2001년 말 31,000명이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99,000여명이 추가로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학력별로는 학사 인력의 부족이 가장 심각하여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5,000명 이상의 인력이 초과 수요

<표 3> IT 인력 수급 부족 전망(5개년 누적)

(단위: 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2-2006 합계	
통신	신입고	721	-919	805	261	-275	-2,981
	전문대	-	-	-	-	-	-
	학사	-1,423	-1,457	-1,289	-1,650	-1,795	-7,613
	석사	-209	-257	-310	-238	-278	-1,292
	박사	28	37	47	61	75	248
합계	-2,381	2,670	2,451	2,210	2,423	12,134	
소프트웨어	신입고	-	-	-	-	-	-
	전문대	-	-	-	-	-	-
	학사	-9,374	-10,807	-11,891	-11,813	-12,188	-56,072
	석사	645	581	715	856	898	3,605
	박사	-196	-212	-207	-235	-200	-1,049
합계	-10,214	-11,600	-12,813	-12,904	-13,286	-60,726	
기기 및 부품	신입고	-	1,396	110	91	308	1,843
	전문대	-	-	-	-	-	-
	학사	-6,175	-6,322	-5,210	-3,081	-3,684	-24,473
	석사	-	-	-	-	-	-
	박사	-	-	-	-	-	-
합계	-6,175	7,718	-5,320	3,172	-3,992	-26,316	
IT 인력 부족합	신입고	721	2,316	915	352	582	4,824
	전문대	-	-	-	-	-	-
	학사	-16,972	-18,586	-18,389	-16,544	-17,668	-88,158
	석사	854	839	1,025	1,093	-1,176	4,987
	박사	-223	249	254	296	-275	-1,297
합계	-18,770	-21,989	-20,583	-18,284	-19,702	-99,266	

상태로 존재하며, 이는 전체 부족인원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다. 석·박사급의 고급인력은 정보통신서비스와 S/W분야에서 매년 1,000명 이상의 부족인력이 예측되며 이는 전체 부족분의 6%에 해당된다. 전문학사급 인력은 향후 5년간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업고졸 수준의 인력은 정보통신서비스와 기기·부품의 분야에서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규모가 감소추세에 있다. 분야와 학력을 함께 고려하면 이 기간에 S/W분야의 학사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인력부족이 가장 심각하여 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돼 향후 대학의 S/W관련 인력의 양성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 3. IT 인력양성 추진 현황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IT 인력 양성사업의 목표는 지식기반경제를 견인할 경쟁력 있는 IT 인력의 확대 양성과 활용체계의 구축에 있다. 정보통신부의 IT 인력 양성사업은 IT 인력의 양적 기반조성 중심의 기초 기술인력 양성사업, IT 인력의 국가경쟁력 제고가 핵심인 고급 전문인력 양성사업, 산업체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 인력 재교육사업, 그리고 국민 정보화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잠재인력 양성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98~2001년까지 IT 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양성

<표 4> IT 인력양성 수

(단위: 명)

구분	인력양성 수*				
	기초	고급	산업	잠재	계
1998년	24,151	93	23,403	39,433	87,080
1999년	25,528	3,232	11,578	34,291	74,629
2000년	22,883	3,770	12,714	349,894	389,261
2001년	23,568	3,835	18,431	1,316,912	1,362,746
계	96,130	10,930	66,126	1,740,530	1,913,716

\* 인력양성 수 기준: 정원사업에 의한 수혜인원 총원이 아닌 각 년도 배출인력 기준으로 집계된 것임.

된 인력은 기초인력양성사업에서 96,100명, 고급인력양성사업에서 10,900명, 산업인력재교육사업에서 66,100명, 그리고 잠재인력양성사업에서 1,740,500명으로 전체 양성인원은 1,913,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3.1 기초기술인력양성사업

기초기술인력양성은 대학 등 정규교육기관의 IT 관련학과에 대해 교육환경 및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IT 전문인력의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정책의 초점은 산업계의 수요에 못 미치는 대학 IT 전공자를 확대 양성하는 것과 동시에, 대학의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을 통해 IT 교육을 내실화 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먼저 IT 교수요원확충지원사업은 대학 및 전문대학이 산업체, 연구소 등의 국내외 실무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국내대학이 해외교수요원을 초빙토록 하여 우리 대학생들이 국내 대학에서 선진 IT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IT 장비지원사업은 산업계의 부족현상이 특히 심각한 소프트웨어분야 학과를 신·증설하는 대학에 대해 장비와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커리큘럼개선지원에 있어서는 산업계의 요구가 대학교육에 반영되어 졸업생의 실무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IT 신기술에 대한 학습기회도 늘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실적으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는 학제적 능력을 지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일반학도가 IT 접목 교과과정을 도입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지원도 실시되고 있다.

### 3.2 고급전문인력양성사업

고급전문인력양성은 해외IT 선진국과의 교류 및 첨단산업분야 전문교육실시를 통해 첨단기술력을 보유한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IT산업계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석·박사급 고급인재의 부족현상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급 IT 인력양성에 있어 중요한 목표는 IT 지식뿐 아니라 국제감각과 영어구사능력 등 글로벌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우선 대학 정보통신연구센터(ITRC) 지원을 통해서 미래의 유망 IT분야(무선통신, S/W개발, 정보보호)에서 요구되는 인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2002년 상반기까지 30개가 선정·지원되고 있는 ITRC는 그 동안 미진했던 IT 학과의 산학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함으로써 모범적인 지원사례가 되고 있다.

글로벌 IT 인력양성을 위한 계획은 해외 우수대학에서의 교육기회확대와 국내·외를 연계한 교육체계구축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우선 IT 해외장학지원을 통해 해외 최우수대학의 학위취득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선진국 신기술의 습득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 대학생들의 해외학점교류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IT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6개월~1년간의 교육을 통해 IT 전문가에게 필수적인 능력인 영어구사력을 대학생들에게 길러주고 있으며, 해외의 실습교육체계를 활용함으로써 많은 대학의 호응을 받고 있다.

### 3.3 산업인력양성사업

산업인력양성은 산업현장의 전문가 재교육 및 새롭게 부각되는 신기술 분야 교육실시 등 산업인력의 재교육을 통해 첨단기술활용 인력양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고학력 실업자 및 대졸 미취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 IT 전문교육지원사업은 선별된 우수 민간학원에 개설된 통상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1인당 교육비의 절반씩을 지원하며, 산업계 수요가 높은 국제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집중적인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MIC IT Academy 지정·육성사업은 IT 전문교육

사업과 병행하여 국내 우수 민간 교육기관을 발굴, 세계적인 전문IT 교육기관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이다. 현재 10개의 학원들이 MIC IT Academy로 선정되어 있다. 이 밖에 국내 IT산업의 수출육성을 위해 필요한 벤처경영자, 마케팅전문가 등 글로벌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프로그램도 시행되고 있다.

### 3.4 잠재인력양성사업

잠재인력양성은 정보화소외계층 및 일반국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통해 국민 정보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저소득층 청소년, 장애인, 주부 등 정보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PC, 인터넷 활용능력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또 여성과 군장병 등 산업인력으로 흡수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계층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IT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보화의 기반을 확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누구보다 큰 잠재력을 지닌 계층으로 창의성을 갖춘 어린 IT 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을 통해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력으로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 4. 결론 및 제언

그간 정부의 지원과 개별 학교들의 노력으로 양질의 IT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제반시설과 인프라는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 IT 관련학과에 대한 지속적인 정원확대 노력에 힘입어 연간 3만명에 이르는 IT 관련학과 배출인원으로 일단 산업계의 양적인 수요는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는 IT 인력양성의 정책적 초점이 양적인 인력양성 및 시설확충에서 질적인 IT 인력양성으로 맞추어지고 있다.

질적인 인력양성의 초점은 현장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정도의 '현장실무능력'과 실리콘밸리 등 세계의 IT 현장에서 선진 IT 기술을 습득하고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의 '글로벌경쟁력'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에 두어진다.

IT 분야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문제해결'의 실무능력이 중요시된다. 즉, 주어진 상황과 제시된 목표에 대응해 특정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학의 IT 교육은 이론적인 강의보다는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산·학 공동연구와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이 고용 즉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보유한 IT 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IT 인재는 IT 기술과 함께 영어구사능력, 그리고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인재이다. IT 수출을 증대시키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IT 본고장을 드나들며 신기술을 배워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IT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IT 인재에게 해외장학 및 학점교류프로그램을 통해 선진IT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외국 우수 교수와 교육시스템을 국내에 수입하는 등 국내외를 연계한 글로벌 IT 인력양성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IT 인력 경쟁력제고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4.1 산·학 협력프로그램의 유기적 활용

인턴쉽 프로그램 및 산·학 협력 프로젝트의 시행을 통한 IT 인력양성방안은 IT 선진국 인력양성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IT 인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적용력을 배양할 수 있고, 기업은 검증된 유능한 사원의 채용이 가능하며, 입사 후 실무교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은 산업을 통해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보와 연구비를 충당할 수 있고, 학교의 위상 또한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인턴쉽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는 산업체와 학교가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교육과정 내 산업체 요구 반영, 인턴쉽 실시, 그리고 졸업 시 인턴쉽 수행기관에 취업연결이라는 선 순환 체제를 구축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현재 정부는 대학IT연구센터(ITRC)를 통해 IT 학과의 산학협력활동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며, 앞으로 인턴쉽 제도 지원을 통해 산업체와 학교 간 유기적인 선 순환 체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인턴쉽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구축뿐만 아니라 두 이해집단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4.2 민간 IT 교육기관의 육성

정규교육기관(대학교) 교육시스템의 변화속도는 기술의 변화와 확산의 속도가 빠른 IT산업의 변화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기술의 변화가 민감한 부분의 인력양성을 대학체제에서 소화하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기업교육기관이나 우수한 민간학원은 IT 시장의 변화와 기업의 수요분야에 민감하게 대응할 만큼 유동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민간학원과 기업 교육기관을 공식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국제수준의 교육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널리 알려진 예로 미국의 Learning Tree, 인도의 NIIT, Aptech 등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교육기관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IT 현장기술이 접목된 커리큘럼과 교재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 4.3 국제적 IT 교육기회의 확대

해외의 우수한 IT 교육프로그램으로 양성된 해외 IT 인력과 국내의 IT 인력이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IT 인력이 해외의 우수한 교육을 받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의 많은 인

력을 해외의 우수한 교육기관에 연수 및 유학을 통해 육성하는 방법과 해외의 우수한 IT 교육프로그램의 도입과 함께 교수와 연구원을 초빙하여 국내에서 선진 IT 지식과 기술을 전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정규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우수한 대학의 분교설립 및 IT 전문대학 설립 등을 추진하여 교육시장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인도의 경우, 2001년 IBS(India Business of School)라는 국제대학이 국제적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대학의 특징은 이사진 전원이 국제적 IT 기업의 CEO이며 교수의 90%가 자매결연 대학교(하버드, 펜실베니아, 인디애나대학 등)에서 초빙되어 세계최고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는 80년대 말부터 국제 교육의 중심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해외 우수 대학의 유치 및 제휴강화의 방법으로 경영, 엔지니어링 및 응용과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및 연구단지가 조성되었고 국내 인력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4.4 IT 노동시장의 정보 효율성 확보

인력이 IT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특정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의 시장전망을 예측하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IT 인력은 노동시장의 정보 비효율성에 기인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수요분야와 기술 수준 등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적절한 인력의 공급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수요분야, 해당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노동시장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교육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교육시스템에 반영하도록 유도하여 IT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기관에서 IT 인력시장의 수급실태를 조사·연구중이며, 시장의 빠른 변화에 맞는 정확한 데이터를 노동시장에 제공하는 유연한 시스템이 기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국내 IT 인력양성의 필요성과 문제점, IT 인력의 현황과 양성추진현황,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 같은 정책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는 것과 더불어 대학들 스스로가 산업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IT 교육을 혁신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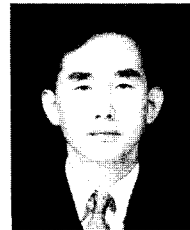
우리 나라는 국민들의 뛰어난 두뇌와 높은 교육 열로 고급 IT 인력양성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IT 교육체계의 혁신을 통해 이러한 강점을 IT 현장의 창의성과 실무역량으로 연결시킨다면, 우리 IT 산업이 세계무대에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권남훈 외, 『정보통신인력의 특성, 수급실태 및 전망(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 [2] 최계영 외, 『정보통신산업 중장기 시장전망(2002-20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 [3] 허문행, 「IT 인력양성현황 및 전망」, 『2002 정보산업민간백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2002. 9.(출판예정)
- [4] 고상원, 『연구개발 인력의 중장기(2000-2010)수급예측』, 한국과학재단, 2000.
- [5]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통신부문 고용동향』, 2001.
- [6]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IT 인력양성사업 성과 분석」, 각년호.
- [7]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인적자원정책의 배경과 주요과제」, 정책설명회 자료, 2002.
- [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호.

- [9]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호.
- [10]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 각호.
- [11] IDC, 「Global IT Economic Outlook」, 2002.
- [12] Jointventure, 「Next Silicon Valley: Riding the Waves of Innovation, White Paper」 Dec. 2001.
- [13] OECD, 「ICT Skills and Employment」, Dec. 2001.

### 저자약력



허 문 행

1979년 숭실대학교 전산학과(학사)  
 1980년-2000년 한국통신 책임연구원  
 1989년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전산전공(석사)  
 2001년-현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단장  
 e-mail: moonh@software.or.kr